

#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이정철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 Convergence Approach of the Marine Tourism Policy

Jung-Chul Lee  
Dept. of Hotel Management, Namseoul University

요 약 최근 해양관광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해안지역의 개발은 시설의 확충, 천연자원의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융복합적 산업의 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어촌어항이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해안지역과 어촌어항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을 위한 문제점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보호·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주제어 : 융복합적 접근, 해양관광, 어촌, 친수활동, 어촌체험마을, 관광자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policy approach in terms of complex combination of tourists and fishing villag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olicies related to the marine tourism industry were investigated and the law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astal area and fishing port area were investigated. As a convergence approach to marine tourism policy, First, the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resources should be based on the increase of hydrophilic activ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 seasons. In particular, the need to dig through support of projects such as the successful model that made aquarium associations etc.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such as "fishing village experience".

**Key Words** : Convergence Approach, Marine Tourism, Fishing Village, Marine Activity on Hydrophilic, Fishing Village Experience, Tourism Resources

### 1. 서론

#### 1.1 문제의 제기

‘해양관광’은 연안, 도서, 해변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라

는 공간자원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1], 해양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 해양레포츠 장비산업, 역사·문화컨텐츠 등 해양관광을 통해 얻어지는 유·무형의 부가가

\* 본 논문은 2015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ceived 22 November 2016, Revised 2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Author: Jung-Chul Lee(Namseoul University)  
Email: jungchulman@ns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산업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최근 도시민들은 농촌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3]. 또한 친수활동에 대한 해양 관광객들의 요구 증가와 기반시설의 개발과 관광 콘텐츠의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 개발의 증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4]. 국내 해양관광산업 육성정책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더불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관광 진흥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2], 해양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한 것은 2007년 재정경제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요트·크루즈 등 고급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2010년에 크루즈, 마리나, 요트·보트 등 해양관광·레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5].

그러나 197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어촌의 소득은 고령화, 인구감소 및 시장개방화로 인한 어업소득 한계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6]. 최근 우리나라 어선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인하여 어항과 항만 내 어항구역에 유희공간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가치가 있는 해안이나 섬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5년 1월 19일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였는데 해안지역 인프라시설 허용을 위한 개정이지만 이것만으로 해안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정책 전환이다.

해안지역 개발을 위하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개발사업의 지역 특성 및 여건 적합성, 현재 법적 제약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지만 해안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어촌어항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비하여 해안지역 개발에 대한 무분별한 정책과 각 부처와 관련된 법률적 제약으로 인한 개발은 해양관광 발전을 위한 저해요인이 많다는 점을 본 연구의 문제제기로 삼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해양관광 관련 문헌, 어촌어항

관련 문헌 등 문헌적인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산업과 관련된 법률과 해양산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양관광과 어촌어항에 대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 2. 관련 법률 조사

### 2.1 해양관광산업 관련 법률 조사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해운물류, 항만개발, 조선업, 수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이 주력산업이며, 최근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 IT, 해양장비산업 등 해양신산업과 함께 크루즈, 마리나,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와 인프라가 복합된 해양관광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2]. 이러한 해양산업은 연안공간의 리조트 조성, 친수 공간 개발 등의 해양관광개발과 더불어 요트·보트 제조 산업, 크루즈 산업 부문에서 매우 높은 성장 전망이 기대되고 있다[7].

이처럼 해양의 활용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광 형태가 강과 산의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생태관광 등으로 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정부도 해양관련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 등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8].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관광활동 행태를 살펴보면, 해수욕과 해안경관 감상 등 단순 휴양형 관광활동의 참여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해양레저·스포츠나 크루즈 등의 관광활동은 참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2].

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어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국가어항 유형별 개발모델 설정’, ‘국가어항 브랜드 개발 및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아름다운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어촌마리나역 육성 개발계획 수립’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복합관광형’, ‘휴양문화형’, ‘어촌레저형’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9] 어촌·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레저관광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2014년 해양수산부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①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마리나산업의 민

간투자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② 지역 경제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도모하여 해양테마 마을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③ 국민 참여형 해양문화·교육 기반의 조성으로 20여개의 해양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유인등대 등을 활용하여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11].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예로서 제주지역에서는 요트마리나 시설이 해상관광업체와 리조트 및 호텔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에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 이는 입지의 중요도를 생각하기 보다는 사업적 여건에 따라 임의로 소규모 시설로 지방 정부에 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요트마리나 사업의 질을 떨어트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지역 호텔 종사들의 직무 만족과 연결이 되며[12], 결국 숙박업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에 요트마리나 정박시설 및 수변시설 개발 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요인 및 주민의 협조와 지역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12].

## 2.2 해양산업 관련 법률 조사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해양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은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관광기본법」 등 40여개의 개별 법률들이 있다. 해양관광정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이외에도 각 부처별로 다양한 해양관광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각 부처별 현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리나산업의 육성이나 크루즈관광개발 등은 여러 부처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방로’, ‘산책로’, ‘자전거길’ 등 길과 관련된 조성사업이나 어촌, 농촌, 산촌 등 체험마을 조성사업, 생태관광사업 등도 부처 간, 지자체간 유사한 관광테마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따라 유사산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친수공간 개발, 해양문화 시설 조성, 생태체험, 마리나 시설 조성, 도서관광 등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광 관련 사업들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5].

해안지역 개발을 위한 2007년 12월에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실적이 없다[2]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자에게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해안권에 설정된 다른 법률의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 사업이 어렵고 세제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해안 개발을 위한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자연공원’은 4개의 용도지구(자연보존, 자연환경, 마을, 문화유산 지구)로 구분되어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연보존지구는 공원면적의 22.8%만을 휴게소, 전망대 등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지구는 해안, 섬 지역에 대하여 입지적정성 평가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이 구역은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안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두 구역이 중첩된 지역은 한 구역의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다른 구역상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예로서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되는 경우 기존의 행위 제한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등 해안지역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법률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불편 가중 및 개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 3. 조사결과 분석

### 3.1 문제점

해양산업과 관련된 40여개의 법률 규정은 상당 부분이 환경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사항이고,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규제 중심의 법제도는 국내외 민간부문의 해양관광사업 투자와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3].

해양레저지구 등의 경우 전자정부를 통해 등록시스템

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과 정책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등록 현황을 통계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용해왔고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등록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약했다는 점, 단편적인 개선 과제해결 위주로 등록 관리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왔다[14]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해안지역 및 어항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사업 유치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 기본 계획에 반영되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가 되며, 수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엄격한 해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곤란하고,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이 저해된다[15]. 특히 어촌지역의 경우 낙후된 의료서비스, 그동안 개발되어온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의 한계점, 정부나 지자체들의 인식의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16]. 최근 해양관광 자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사계절에 대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친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점차 가족 등 소규모의 개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여행의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어촌·어항 지역은 본연의 삶 이외에 관광객들을 통한 경제적 여건 향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먹거리, 볼거리, 숙박 등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지역 주민의 본연의 삶을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 단위의 성공적인 모델 제시를 위한 법령 개선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와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해양관광 활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부서가 신설되고 법적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양관광 개발을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공간자본의 증식은 지역의 고유성과 시간적 연속성을 파괴함으로써 장소가치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17]. 장소가치의 상실은 무분별한 지원과 개발로 이어졌으며, 성공적인 어촌·어항에 대한 모델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진행하는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참여, 갈등 등으로 인하여 보다 성공적

인 모델을 찾기 위한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 3.2 발전방안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양관광 인프라에 대한 구축, 축적 등 해양관광 소프트웨어의 구축 등이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동기요인들의 파악은 물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 속성들을 개발해야 한다[18]. 이러한 조사와 주요 속성의 개발을 통하여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은 현재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 사업들의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관련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은 기반시설인 하드웨어 조성 및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기반시설은 운용하고 해양관광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해양관광활동의 사회적 변화에 맞게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양관광자원 이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또한 지역사회에 관광이 도입된다는 것은 지역발전, 주민소득증대,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지가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삶이 방해를 받거나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 한다[20]. 어업인과 관광객들 간의 상충된 갈등구조를 이해 당사자 간 오랜 숙의를 통하여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관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산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도시민의 자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여유롭게 체류하며 즐기는 도농 교류활동이라 할 수 있다[21]. 현재 어촌·어항 지역에는 노후된 시설, 관광객들에게는 불편한 숙박 시설, 먹거리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IT 기술에 따라 정보화 서비스의 안전성도 점검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22], 이는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23] 등은 장기적인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일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최근 성향과 욕구에 맞도록 융복합적인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접근 필요성을 문제의 제기로 삼고,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산업 관련 법률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정책의 융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융복합적인 정책의 접근 방법은 연안공간의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이용 주체들 간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없이 단순히 부동산 가치 중심의 논리에 지배됨으로써, 보다 복합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되지 못하고 단순한 물리적·환경적 측면에 편중되어 개발 및 개선이 비체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다.

첫째, 해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된다. 따라서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행위 절차와 재정·세제 지원 등의 간소화를 위하여 여러 특례법에 준하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정은 자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친수 활동의 증가와 사계절을 갖고 있는 특성에 맞도록 자연 보호·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항협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하며, 이를 다른 어촌마을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해야 한다.

셋째, 해양관광을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개발을 해야 한다.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현재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기존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관광 관련 산업을 접목한 융복합적인 산업을 연계하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레저, 선박, 용품 등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국외 해양관광관련 정책을 비교하지 못하였고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CKNOWLEDGMENTS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15

#### REFERENCES

- [1] Kim S. K., Marine Tourism, Hyunhaksa, pp. 34-47, 2007.
- [2] Park Su-Jin·Hong Jang-W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Korean's Marine Tour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8, No. 2, pp. 132-134, 2012.
- [3] Ick-Hwan Kim·Han-Seub Jang·Yung-Min Kim,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City People to Revitalize the Green Tourism", J.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pplication, Vol. 12, No. 1, p. 51, 2009.
- [4] Kim Y. J., "Development of the Marine Tourism Chungcheongnam-do", Opened Chungnam, Vol. 70, p. 7, 2015.
- [5]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arine tourism and leisure activation measures laid; Press release, pp. 6-14, 2010.7.15.
- [6] Lim Kwan-Hyeok·Yu Young-Sim, "A Study on Tourism Community Business for the Presentation of Endogenous Development Model in a Fishing Village",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Vol. 27, No. 4, p. 17, 2015.
- [7] Douglas-Westwood Ltd, World Marine Market, pp. 9-13, 2005.
- [8] Yoon-Chang Chang,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on Negotiation Strategy and Participation Decision", Journal of the

-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7, p. 3157, 2011.
- [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ing , Fish Tank, and Transformed into a New Marine Attractions:Press release, pp. 1-2, 2015. 7.8.
- [10] Hyo-Kyung Kim·Jae-Young Moon, "A Study on the Work Process of Hotels and Residence Hotels Effect on the Employee Satisfa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 93, 2016.
- [11] Lee J. H., "New Trends and Practic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ne Tourism", Opened Chungnam, pp. 12-12, 2015.
- [12] J. C. Yang·K. S. Hwang, "Study of the Location Factors of Yacht Marina and an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 235, 2015.
- [13] Choi C. H., "Problems and Improvement of Water Activities related laws", Sport and Low, Vol. 14, No. 1, pp. 186-188, 2011.
- [14] Y. C. Yang, J. H. Lee,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s of Registration System in Water Leisure Craf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 273, 2016.
- [15] Jo S. P.·Shin D. H., "Counter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unnam Marine Tourism Promotion District introduced", Jeonnam Research Institute, Regioninfo, Vol. 333, pp. 5-10, 2015.2.
- [16] Lee Jung-Chul, "The Development of 'Stay Tourism Produc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Journal of Marine Tourism Research, Vol. 27, No. 1, p. 78, 2015.
- [17] D. H. Kwon·S. H. Lee,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Settlem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 1770, 2014.
- [18] Lee Jung Chul·Park Jae Wan, "The Effect of Tourist's Motivati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Vol. 8, No. 2, pp. 22-23, 2015.
- [19] Lee J. Y.·Kim S. H., "Study on the Activation of Factor Marine Leisure", Administration Journal, Vol. 48, No. 4, pp. 425-426, 2010.
- [20] Lee Hwan-Bong, "A Study on the Residents attitude to tourism development, Kyongg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Tourism & Hospitality, doctoral thesis, p. 13, 2007.
- [21] Lee Jung-Chul·Shin Kang-Hyeon, "A Suggestion of Medical Tourism at a Rural & Fishing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Vol. 24, No. 3, p. 145, 2012.
- [22] Yoon-Su Jeong, "Design of Security Model for Service of Company Information",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2, No. 2, p. 43, 2012.
- [23] Eui-Sub Kim·Sang-hyup Yoon, Jun-beom Yoo," A Survey on Safety Analysis Techniques for Safety-Critical System",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2, No. 1, p. 11, 2012.

이 정 철(Lee, Jung Chul)



- 1994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1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호텔·외식경영, 해양관광분야
- E-Mail : jungchulman@nsu.ac.kr